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 13호 2004년 4월 2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중기청, "중소·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대책" 발표

-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의 핵심주체로 육성 -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3월 2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그간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저임금과 하도급방식에 의한 판로 확보 등의 장점이 점차 약해지고, 생산전반에 걸쳐 취약한 혁신능력이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분야별 장·단기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조기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장기적으로는 혁신능력 제고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먼저, 단기적 정책 방향을

보면, 조기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절차의 개선 등 편리한 창업환경조성, 중소기업 근무인력 양성 및 청년층 채용확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개선 및 인력유입 촉진, 소상공인 육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촉진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등 6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편리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기청은 산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절차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창업관련 규제 완화와 일괄의제처리대상 확대 등 창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창업민원 전담공무원제 도입, 창업민원 우선처리

의무화, 처리과정공개제도 도입 및 구비서류 간소화 등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창업서류준비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인력양성 및 청년층 채용확대를 위하여 중기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9.1%인데 비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6.2%에 달하는 기현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년실업자 대상 전문기능교육 및 수출전문요원 훈련 등을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원)생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지도 참여 등을 통하여 취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10년이상 장기근속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물량의 10%내에서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주 5일 근무를 조기 실시하는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시 1인당 연 6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취약한 복지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년 종료 예정으로 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현 수준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열, 분진, 소음 등 직무기피 요인 해소장비 개발에 197억원, 공정혁신기술개발·e-Manufacturing에 119억원을 지원하여 생산 현장 작업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장하여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금년에 4천억원의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230개시장에 1,150억원을,

2007년까지 총 1,400개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면서 온라인 주문·배송을 위한 8개 『통합콜센터』도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부품소재생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협력펀드』 결성을 지원하는 한편,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최근의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 원자재 구입자금 1,200억원, 수출용원자재 구매자금 650억원 및 공동원자재 구매자금 150억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IT 중소기업의 반도체 공동구매를 위한 『전문대행사』를 육성하며,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창업자금 금리를 현행 5.9%에서 4.9%로, 지역 균형발전기금 및 유통합리화자금 금리를 현행 5.5%에서 4.9%로,

IT설비투자자금 금리를 재특금리(4.37%)+0.5%에서 재특금리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혁신능력 제고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역량 확보, 시장중심의 벤처기업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생산구조 고도화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및 발전적 개편, 내실있는 공공구매제도 운영 등 판로환경 개선, 중소 지식기반 서비스기업 육성 강화 등 6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을 성장과 고용의 핵심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2만불 시대를 여는 첨병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8년까지 100개 업종별 『산학연 기술연구회』 결성 및 1만개의 대학과 중소기업간의 『기술연구소 그룹』 육성 등을 통한 산학연 기술협력 하부구

조를 확충하고, 대학 보유기술 중소기업 이전, 기술지도 및 시험·연구 장비 공동이용 활성화 등 지방대학의 기술혁신 역량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예산의 단계적인 확대하고, 개발기술 사업화성공률 제고를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이 큰 핵심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타당성연구 기술개발 개발기술사업화의 3단계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시장중심의 벤처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영역 확대 및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을 통한 벤처캐피탈을 벤처시장의 평가자·촉진자로 육성하고, KOSDAQ, M&A, Secondary Market 등 투자회수시장을 활성화키로 하였으며, 내년 말 벤처기업확인업무의 종료에 대비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 평가기법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중소기업의 생산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생산구조고도화 컨설팅 종합지원단』을 설치하고, 2008년까지 5천개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공정개선 시설자금 지원시 별도심사를 생략하는 등 구조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생산·경영·관리의 정보화를 위한 연계지원사업도 마련하면서,

내실 있는 공공구매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부, 한전 등 4개 기관인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협약기관을 2008년까지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기술개발과 구매의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경쟁구매 범위를 2004년 1억원 이하에서 2006년 2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간 경쟁

구매를 활성화하고, 의무경쟁구매확대에 맞추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소득수준 향상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식기반 서비스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중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서비스업종 분야별 진입규제, 금융·세제상의 제조업과 차별대우 등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금년 1천억원인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지원 활성화 및 전용펀드 조성을 통한 창업투자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컨설턴트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컨설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경영·마케팅·디자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정책총괄과(02-509-7033)

『벤처기업 1사 1인 채용운동본부』 발족



중소기업청은 오는 2008년까지 12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 1사 1인 채용 운동' 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1일 이를 위해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 및 코스닥증권시장, 벤처캐피탈시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기업 1사 1인 채용운동 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업종별 상위 200개 벤처기업이 1차로 1만여명을 채용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는 등 벤처기업이 솔선해 청년실업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벤처기업 1사 1인 채용 운동본부'는 벤처기업 인력채용 상담을 비롯해 인력수요를 발굴 및 채용요건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넷을 통해 연중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전개하는 등 우수 벤처기업과 청년실업자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금년 10월에는 대학과 공동으로 대규모로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할 예정이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6)

202곳 재래시장 새모습으로 단장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대상 시장 202개 선정 -

전국 202개 재래시장이 115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총 2300억원을 투입, 다음달부터 주차장·화장실·아케이드 설치, 건물 리모델링 및 이벤트 공간 마련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해 연말경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의 매출 급감과 대형할인점 진출 확대에 대응해 올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150억원의 국고지원대상으로 부산 동래시장 등 202개 시장을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사업에 착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에서는 지난 3월5일 중부권을 강습한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전 태평시장 등 5개 재래시장에 대해 24억 2000만원의 국고를 우선 지원했다.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91개 시장이 건물 개·보수 및 리모델링(국비 413억원), 59개 시장이 아케이드(차양막) 설치(국비 331억원), 46개 시장이 주차장 확충(국비 366억원), 6개 시장이 만남의 광장 및 이벤트 공간 설치(40억원)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 현대화 지원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고유 브랜드·로고 등 개발지원, 시장여건·특성에 부합하는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지원 등 경영현대화를 위해 27개 시장 4억5000만원의 국고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전화·인터넷이용 상품주문·접수 및 배송을 위한 “통합콜센터” 설치 지원, 재래시장별 상인조합 결성 등 자율적 혁신을 주도할 구심체 육성 지원

및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등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정책국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9-706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획기적으로 개선

중소기업청은 전국 15개 시·도에 소재한 24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2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지역간 산업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분야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을 배양하고,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인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금년부터 사업추진방식을 개선, 중앙정부에서 지역별 지원한도만 정해주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특히, 올해에는 벤처집적시설 건립, 연구·개발·시험·분석에 필요한 공용장비의 확충 등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벤처환경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며,

촉진지구별로 평가와 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금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국비 지원범위 및 향후 지구별 발전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주까지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24개 촉진지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01년부터 시작하여 수도권 8곳, 지방 16곳 등

총 24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3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총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벤처지원센터 건립, 공용장비구입 지원 등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전체 벤처기업 중 20%인 1,600여개사가 촉진지구에 입주되어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창업벤처기업국
벤처진흥과
(042-481-4423)

기술유출·복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국 등 외국의 기술유출·복제 등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정원, 특허청, 중진공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4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현지 투자기업, 기술우수 수출기업 등 2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 외국기업들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정보 등을 빼내간 뒤 이를 바탕으로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 자국시장 판매는 물론, 우리나라로 역수출하거나 수출을 저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국의 현지 공장 설립, 기술협력, 해외인증 획득 대행 등을 이유로

우리기업의 기술·제품 등 기업기밀을 복사·유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중기청은 전문인력 및 지식 부족 등으로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특허청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원, 특허청 등 관련부처의 기존에 파악된 피해사례도 함께 분석해, 피해 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의 민원 담당자 및 중소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피해방지 대처요령 및 구제방법 등 사전예방 차원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 5부터 10월까지 전국적인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벤처기업법률자문단」을 활용, 1건당 2백만원, 업체당 4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북경 등 중진공 해외현지사무소에 애로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접수된 내용을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등록해 분기별 지원내용도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시험평가과
(042-481-4457)

상위 100대 중소기업 수출 24% 늘어

중소기업청은 수출중소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마인드 제고를 통한 수출촉진을 위해 2003년도 수출실적 상위 100대 중소기업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액 상위 100대 중소기업은 미·이라크전, 사스의 발발 등 열악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4.0% 늘어난 73.3억달러 기록해 총수출(19.3%), 대기업수출(19.1%) 보다 높은 증가세를 실현했다.

기업별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한 중소기업은 무선통신기기 생산업체인 (주)팬택으로 전년대비 8.3% 늘어난 4.5억달러를 수출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원텔레콤(주) 3.6억달러, (주)벨웨이브 3억달러, (주)휴맥스 2.8억달러, 한국티티(주) 2.6억달러 순이며, 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업종이 1위에서 7위까지를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규모별로는 1억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13개사로 5천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100대 기업이 55개사에 이르렀다.

증가율 면에서는 전년대비 플러스 성장을 보인 기업은 78개사이며, 이중 1000%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한 기업도 5개사에 달했으며, 반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기업은 22개사였고, 이중 30%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기업은 2개사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화학공업(166.6%, 5.1억달러) 생활용품(142.0%, 1.6억달러), 전기전자(24.9%, 40억달러) 업종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플라스틱(△41.9%, 1억달러), 철강금속(△17.0%, 1.6억달러), 섬유류(△13.2%, 9.9억달러) 등은 감소했다.

또한 업종별 수출비중은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100대 기업 전체의 5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기계, 섬유 등 3대 업종의 수출액이 전체수출액의 80.3%를 차지해 소수업종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의 수출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29.7% 증가한 17.7억달러로 1위를 기록해, 전체 100대 기업의 24.1%를 차지했다.

홍콩(109.0%, 14.2억달러), 대만(146.4%, 2억달러), 베트남(166.7%, 1.9억달러)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미국(△5.9%, 9.7억달러), 일본(△13.2%, 3.3억달러), 영국(△21.5%, 1.3억달러) 등 주요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4)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중소기업을 돕자 -

중기청은 심각한 청년 실업난 속에서도 만성적·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4. 14(수)까지 국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모두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창의성, 적절성, 타당성,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등 1편 2백만원, 2등 3편 100만원, 3등 5편 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상반기 중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널리 활용할 계획이다.

제출시한은 4.14(수) 18:00까지이며, 아이디어 작성 분량은 A4 용지 8장 이상이다.

▶ 기업성장지원국
인력지원과
(042-481-4512)